

광양시, 제25회 광양매화축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콘텐츠 구성부터 관람객 안전·편의까지, 완성도 높은 축제 준비에 만전

제25회 광양매화축제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양시가 12일 시청 창의실에서 '제25회 광양매화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축제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계획 ▲행사장 구성 ▲교통·주차 ▲안전·편의 ▲환경·위생 관리 등 분야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제25회 광양매화축제는 오는 3월 13일 개막해 열흘간 진행되며, '매화, 사계절 꺼지지 않는 빛(광양) 속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매화 피는 순간, 봄이 오는 시간'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과 체계적인 동선 설계,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4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 축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문화로 즐기고, 문화로 기억되는 축제를

광양시는 올해 축제를 예술·전시·체험이 결합된 문화관광축제로 확장해 체험·향유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한다.

매화문화관에서는 기린도를 그린 광양 출신 업체인 화백의 민화 특별전을 개최하고, 방우송·이아남·이경호 등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아트 작가 8인의 설치 작품전도 함께 마련해 전통과 현대, 미래가 어우러지는 전시 콘텐츠를 선보인다.

개막식에는 방우송 감독이 직접 해설하는 미디어아트 관람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축제 광양시는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입장료를 1천 원 인상(성인 6,000 원)하고, 입장료 전액을 지역상권으로 환원해 축제장과 다담면 내 참여 점포, 광양수산물유통센터, 중마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광양만의 특색을 살린 먹거리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다. 세계 최초 김 양식



지의 역사성을 담은 '김국 한상'을 비롯해 광양의 대표 브랜드인 불고기를 활용한 '불고기 담아 광양도시락', '광양불고기김밥', '광양매실한우버거'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섬진강 매화마을 공간에는 차량 통제로 매출이 감소한 지역 카페가 참여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디지털 업체들은 매화·매실을 주제로 한 축제 한정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차별화된 체험·참여 프로그램 광양시는 축제 공간을 직접 누비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확대한다.

'광양매화 스텝투어'는 축제장 3개소를 방문해 매화마을 전경을 스텝으로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며, '매화인생 사진관'에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양시지부 소속 전문 사진가들이 매화꽃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지원한다. 광양신선호 기자



고흥군, '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45호 공급... 청년층 유입 및 안정적 정착 기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청년층의 귀농귀촌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점암면 신안리 205번지 일원(구 점암초등학교 신안분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27억 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45호) ▲진입도로 개설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신안분교 추억의 공간 등을 조성했다.

특히, 입주 공간은 청년세대의 취향을 고려해 원룸형 29세대(26.13㎡)와 투룸형 16세대(59.40㎡)로 구분했으며, 실내 인테리어와 공간 배치도 젊은 감각에 맞춰 설계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1회 계약 기간 연장으로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원룸형은 월 15만 원(임대보증금 150만 원), 투룸형 월 20만 원(임대보증금 200만 원)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입주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신혼부부 세대주로서 ▲공고일 기준(2월 9일) 세대 구성원 모두 고흥군 관내 무주택자 ▲고흥군 이외 지역(관외)에서 1년 이상 거주자가 등록돼 있고 고흥군으로 전입 예정인 자 등이다. 입주 신청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고흥군청 인구정책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청년 및 신혼부부가 고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희망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및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권역별·타마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선정 결과는 무주택 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16일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자에게는 고흥군청 인구정책실 지방소멸대응팀(☎061-830-5449)에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위해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을 본격 운영하고 학습자 모집에 나서며 시민 누구나 배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나주시는 올해 4월부터 나주시평생학습관에서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평생학습관은 개관 예정인 빛가람 복합

나주시평생학습관, 문해교육 학습자 모집... 4월 수업 시작

관내 유입, 전남교육청 지정 학력인정과정 운영기관 확정

문화체육센터 2층에 위치해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전라남도교육청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을 신청했으며 서면 및 현장 심사와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나주시평생학습관

이 학력인정과정 운영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개설되는 초등 1단계 학력인정 과정은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연간 총 120회 수업으로 운영되고 단계별 과정

을 3년간 이수하면 초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는 2월 한 달간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나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naju.go.kr/edu/)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나주/이명열 기자

장흥군은 1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 인권 보호, 농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에는 관내 계절근로자 고용주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

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침해 예방교육

존중과 보호가 실천되는 근로환경 조성 앞장

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이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안내 ▲인권침해 예방 및 사례 공유 ▲고용주의 준수사항 및 책임 강화 방안 등을 중

심으로 실질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용주의 책임 있는 관리와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군 가족센터가 최근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장성군 가족행복센터(장성읍 역전로 199-10)에서 열린 이날 개강식에는 아이들과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자축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인 문화예술놀이 '햇살'의 우쿨렐레·오카리나 공연으로 시작해 △사람의 장학금 챌린지 7호 나

장성군 가족센터 "우리들의 행복한 시작을 알립니다"

청년 자립 프로그램 등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 계획

눔 증서'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후원금 전달식 △새해 장성군 가족센터 주요사업 홍보 영상 시청 △다 이루어질지니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파스텔화 전시, 놀이 체험, 가족·청소년 봉사단 모집, 아이돌봄 서비스, 가족상담, 진로 설계 지원,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올해 장성군 가족센터는 △병원 동행 매니저 양성교육 △청년 자립 프로그램 △모두의 가족센터 운동교실(가정) 등 신규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함평군, 전 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 공감 온라인 교육 추진

차별 없는 포용 행정 실현... 공직자 인권 감수성 강화

전남 함평군이 공직자 다문화 감수성과 인권 의식 제고에 나섰다. 함평군은 "오늘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행정과 포용적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문화 이해 공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직자의 언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인권 감수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와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운영된다.

교육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다누리배움터' 공직자 과정을 활용해 실시하며, 전 직원이

필수로 이수하게 된다.

교육 내용으로는 ▲다문화 사회 법과 정책 ▲공직 가치 ▲다문화 사회에서 공직자의 서비스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총 4시간 30분 과정으로 운영한다. 함평군 직원은 오는 3월 중순까지 교육을 모두 이수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공직자의 언행은 지역사회 신뢰와 직결되므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차별 없는 행정, 존중과 포용의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훈 기자

